단 한번만 정직하면 총체적 샬롬

(시편 111:1~10)

1.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2.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3.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엄위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4.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오늘 말씀 중심으로 <단 한번만 정직하면 총체적 샬롬>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단 한 번만 정직하면 총체적 샬롬'
"샬롬"이라는 단어의 뜻은 평화 평강 평안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을 우리나라의 '안녕하세요. 평안하세요. 평안하시기를 빕니다.'라는 일상적인 인사정도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은 안식과 같은 맥락에서 우리의 삶을 훨씬 더 본질적인 차원으로 이끌어갑니다.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일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맺는 관계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모든 사람이 맺는 관계에 대한 숫자를 생각해본다면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요즘 인터넷에는 페이스북과 같은 SNS가 생겨서 잊고 살았던 동창이나 친구들과 연락이 되어서 관계의 숫자는 더욱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사물에 대한 관계도 있습니다. 애완동물은 물론이고 돈에 대한 관계 건강에 대한 관계 혹은 명품 등에 대한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샬롬은 이렇게 내가 관계하는 모든 것에 기쁨과 감사가 가득 채워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관계들 중에서 단 한 번 정직하면 나머지 모든 관계는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총체적 샬롬이 임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샬롬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정직이 무엇이고, 단 한 번의 관계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 부부사이에 갈등이 생겼다면 성격 탓이나 상대방의 이기심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혹은 정직하지 못하고 속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속임으로 인해 생겨난 갈등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정직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직을 편의상 본래의 정직(원 정직)이라고 해봅니다. 이 본래의 정직이 지켜지

지 않으면 부부사이의 거짓말을 포함해 그보다 더한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탐욕 등과 같은 범죄가 생겨나게 됩니다. 인간이 인간에 대해 행하는 범죄들은 본래의 정직이 지켜지지 않음으로 생겨난 많은 열매들 중에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정직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덕목에 관한 단어들 중의 하나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인생 전체를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정직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정직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특징적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정직으로 규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삶을 그림으로 연상해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곳에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 속에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매일매일 그리시는 관계도에서 살아가는 셈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족들과 관계하고, 집 밖으로 나가면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사람들과 관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정해놓으시고 점선으로 관계도를 그려두셨습니다. 이 점선을 따라 선을 그어가는 것이 하루하루 샬롬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이 샬롬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만나는 관계들이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관계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놓으시고 점선으로 그려놓으셨습니다. 내가 눈떠서 제일 먼저 만나는 대상이 배우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배우자와의 관계를 점선으로 그려두셨기 때문에 그 점선이 어떤 형태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정직이 무엇인지 알고 정직하게 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 한 번의 정직을 통해서 점선으로 이어진 모든 관계도가 실선으로 그려지면서 하루의 삶이라는 그림이 완성되고 총체적 샬롬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언뜻 보면 정직이라는 주제가 어울리는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1절을 보면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라고 했습니다.
정직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만 비중 없이 지나가는 수식어로 여겨집니다. 정직이라는 말 대신에 여러 가지 다른 말들을 집어넣어도 내용상 문제가 없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모임'이라고 해도 될 것 같고, '하나님께 부름 받은 자들의 모임'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라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인이 굳이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라는 단어를 선별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상투적으로 쓰일 법한 정직이라는 단어가 나머지 내용 전체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시인은 듣는 이들이 자신처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정직에 대해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이 시를 쓴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점선으로 된 관계도를 다시 떠올려봅니다. 이 관계도는 하나님께서 창초 때부터 오늘까지 매일매일 반복되어서 제공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점선이 그려져 있고 내가

관계해야 하는 사람과 사물들에 대해서도 점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점선의 구성이 나를 중심으로 되어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점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관계해야 할 사람과 대상들에 대해서는 나로부터 점선이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점선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직이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점선을 따라 실선을 그리는 것입니다. 이 점선은 언제나 도중에 꺾이거나 휘지 않는 직선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는 어느 곳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이어지는 직선을 그려내야 합니다. 배우자도 거치지 않고 심지어 내 몸의 건강상태조차도 거치지 않고 내 마음은 하나님과 직선으로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에 먼저 마음을 보냈다면 이미 마음의 선은 하나님께로 도달하기 전에 휘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정직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정직이라는 것은 곧 직선으로 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이 그려두신 점선을 따라 움직이면 어떤 것도 거치지 않은 채 하나님께 직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녀문제가 급하게 여겨져서 마음을 우선 그쪽으로 보냈다가 하나님께 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려둔 점선을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직선으로 하나님께 향할 때에 내가 관계해야 될 모든 것들로 이어지는 새로운 점선이 시작됩니다. 내가 관계 맺어야 될 모든 대상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선이 뻗어있고, 하나님께 직선으로 도달하고 나서야 그 선들을 채워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직입니다. 이 단 한 번의 정직이 이루어지면 내가 육체를 통해 관계하는 모든 대상들과의 관계는 하나님이 직접 하시든 나를 통해 하시든 전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됩니다. 이 상태가 앞서 말씀드렸던 샬롬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 정직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크기의 마음 공백을 갖도록 지음 받았습니다. 그 마음의 공백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백을 세상으로 채움으로써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려진 점선을 이탈하게 된 것입니다. 자의로 우선적인 첫 번째 대상을 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한 대상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다른 신입니다. 내 마음의 공백을 채우고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다고 믿어지는 대상들입니다. 여기에는 점선이 없습니다.
마치 글씨본을 받은 학생이 점선대로 글씨를 쓰지 않고 제멋대로 그려대기 시작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돈이나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기쁨과 만족을 얻으라고 점선을 그려주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점선을 벗어나 멋대로 실선을 그려 넣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직하지 못한 거짓입니다.
하나님 크기의 마음 공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돈으로 만족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은 거짓입니다. 그것이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거짓이 아니라고 맹신하고 있을 뿐입니다. 나는 돈이 있으

면 만족할 수 있다며 스스로를 속이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일류대학에 들어가면 만족하겠고, 암이 나으면 봉사나 충성을 다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러한 상황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자녀나 건강에 대해 점선을 그려두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신 점선 밖으로 이탈한 내가 그린 실선의 삶은 한 마디로 혼돈입니다. 뒤엉킨 삶은 풀려고 해도 풀리지 않습니다. 정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 한 번 내 마음을 하나님께 제일 먼저 직선으로 드렸더라면 내가 관계해야 할 모든 대상들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움직이며 꼬일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정직한 삶에서는 대적자들과 원수가 나타난다고 하여도 평강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원수들에 대한 불평과 원망조차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루하루 그리시는 관계도에서 단 한 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직선으로 그렸다면 샬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첫 번째 선 긋기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향해 그어버렸습니다. 다른 대상에게 정직해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크기의 마음 공백을 가진 자로서 세상의 가치를 통해 만족할 수 있다고 여기는 마음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일 뿐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오늘 시편 기자는 정직한 자의 모임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1절에 '모임과 회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모임은 적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고 회중은 많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에 정직한 자들은 항상 소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정직한 자들이 모이는 성전은 큰 모임이 됩니다. 이것이 모임과 회중의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모여서 여호와를 찬송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 마음을 직선으로 보낸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마음의 기쁨과 만족이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선조들에게 행하셨던 기적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직선으로 가야하는데 하나님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냄새도 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을 보낼 대상으로서 하나님을 포착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 돈이 행복과 만족을 줄 수 있다고 믿어서 돈에 대해 직선을 그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신 점선을 벗어나는 삶을 살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면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하려는 것입니다. 홍해도 가르시고 광야에서 사십 년 동안 이백오십만 명을 먹이시는 힘을 가진 하나님이라면 나에게 필요한 돈은 금방 조달해주시리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죄질이 악한 부정직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마음을 보낼 대상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런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을 보라는 것이지, 기적을 하나님의 도구로 이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드러내시기 위한 방법이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보며 내게도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적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홍해를 가르시는 분이 내 앞에도 계심을 깨닫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이 생겨난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라고 하였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속량으로 보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듭 반복되었던 '속량'은 곧 어린 양을 죽이는 상번제였습니다. 여기서 어린 양이 대신하여 죽는 대상이 바로 부정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려놓으신 점선 대신에 내가 세상의 가치를 통해 기쁨과 만족을 추구하려고 멋대로 그렸던 실선의 부정직함을 어린 양과 함께 죽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속량을 위해 성전과 번제단이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번제단은 주님의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우리는 유전죄적 체질 때문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가치를 향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하여 스스로를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대상들에게 마음을 보냅니다.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가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손으로 만져지는 무엇인가가 있으면 만족할 것 같습니다. 백화점에 가서 명품백을 보면서 사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씩은 있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자꾸만 마음이 끌려가니까 그러한 마음을 십자가에서 죽이라고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멋대로 그리느라 가려져버린 하나님의 점선을 다시 그리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승천하신 그 길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올라갈 때에만 하나님께 정직하게 됩니다. 우리는 승천하신 주님의 길을 따라 갈 때에 밧줄을 붙잡고 올라가듯이 안간힘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마음을 십자가에 고정시키고 있을 때에 주님을 따라 올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승천을 기록한 모든 구절은 주님께서 스스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올림을 받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막16:19, 눅24:51, 행1:9).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뿐이었고 부활과 승천은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점선을 이탈하려는 마음을 죽이면 됩니다. 정직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가치들을 기웃거리는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도구로 삼으려 할 뿐입니다. 돈이나 건강 승진 등에 끌리고 목사님들은 부흥과 예배당에 끌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리신 점선에서 벗어났다면 얼른 십자가에서 죽어 승천하신 주님의 직

선 밑으로 되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생활화하지 않기 때문에 직선에서 이탈된 부정직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세상의 가치를 계속해서 추구하게 됩니다. 이것이 현재 기독교의 상태입니다. 부정직과 거짓이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생활화하지 않으면 복음을 아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그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것만이 십자가를 아는 것이며 십자가를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기쁨과 만족임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돈 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천하에 몹쓸 부정직함이 마음으로는 세상의 가치를 기뻐하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돈과 건강이 그렇고 자녀의 형통과 애인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이 거짓 믿음을 진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올바른 믿음으로 돌아올 기회조차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정직하지 않은 채로 아무리 예수님과 하나님의 이름을 수없이 부를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수없이 많은 관계를 맺어가야 합니다. 내가 그 관계 하나하나를 신경 쓰려 할 때에 삶은 피폐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단 하나의 관계만을 신경 쓰면 나머지 관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뻗어나갈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는 말과 행동조차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어진 점선을 이탈하려는 마음을 십자가에서 끊임없이 죽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들어 올리시며 직선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몸과 연관된 모든 관계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실선으로 이어져가면서 이루어져나갈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은 총체적 샬롬의 삶이 될 것임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단 한 번의 정직으로 매일매일 모든 관계가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총체적 샬롬을 사는 복지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